



소녀 초아

"아재야재 바라 아재~ 터  
열심히 달리셔야죠!"

갱생아재 이상민

"요 정도 달려주면 오빠  
해도 되지 않겠니?"



**1등이  
뭘이 좋헌디?**  
아재와 소녀의 아이돌 랭킹

야구 성적이 곧 행복이 되는 신개념 야구 버라이어티!



# 불야성

★ 불평등 야구의 성지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밤 10시 KBSN SPORTS 방송

진짜 궁금했던 아이돌에 관한 모든 것!



소녀 초아, 아재 상민이  
알려줄게~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50분  
KBS **i**이 방송



05 N special

### 1등이 뭣이 중헌디?

06 주간 1위 쟁탈전 <불타는 야구의 성지>

08 <차트를 달리는 소녀> 아이돌 랭킹10

10 <출발 키즈 드림팀> 체험전 랭킹10

14 On air

<엄마는 고슴도치> 시즌2, 4인 4색 아이들 탐구

16 N festival

201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18 Review

상처 입은 두 남녀의 계절 같은 멜로

<함부로 애틋하게>

19 N together

스카이라이프와 함께한 KBS N 사회공헌활동

20 N news

KBS Kids <출발 키즈 드림팀> 개막식

22 Notice

<아이러브 베이스볼> hite 이벤트

## KBS N Magazine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6.08.01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297  
 기획 홍보팀 이용주, 최고은, 이지희  
 제작·디자인 디앤씨(02-792-5444)



www.KBS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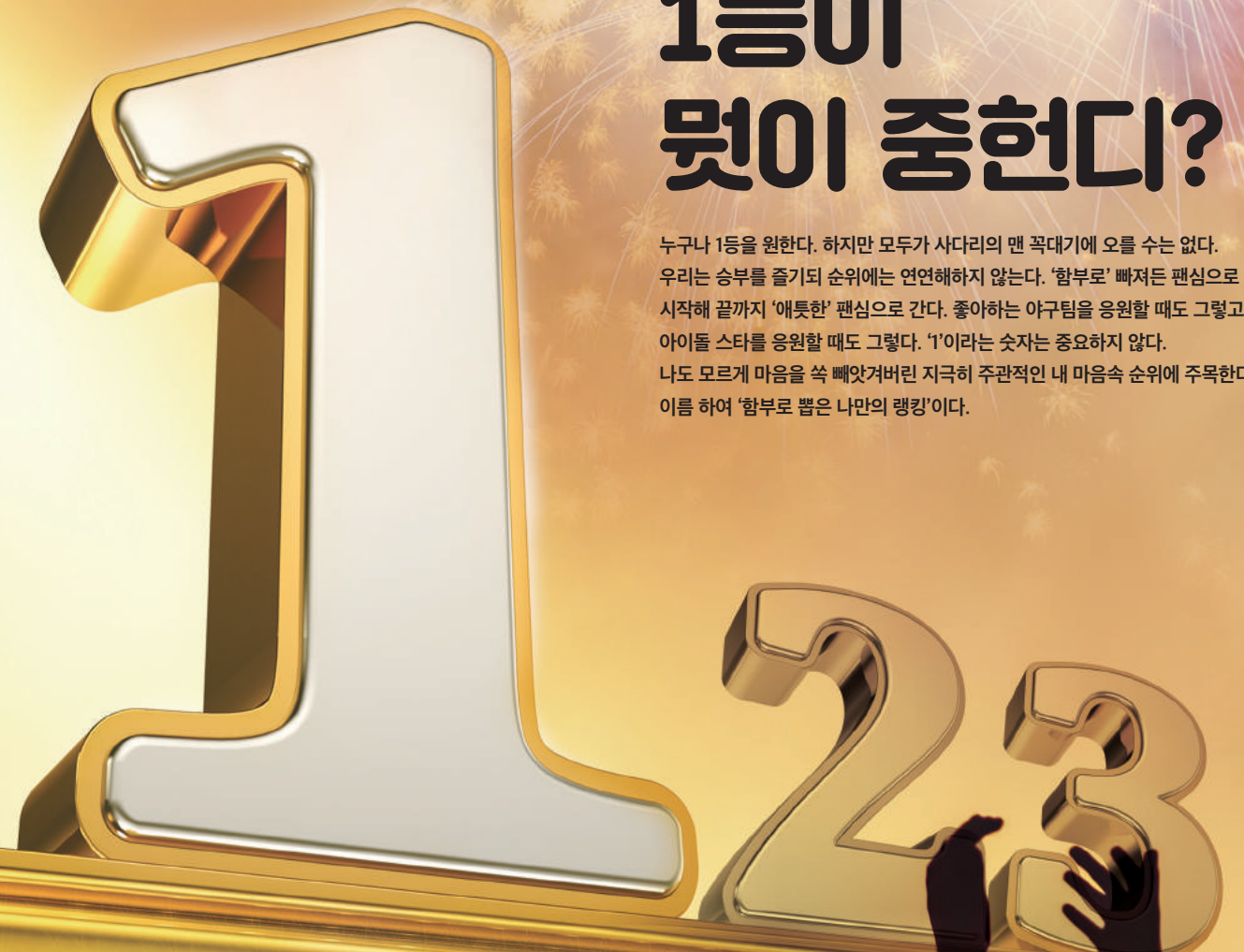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소식  
 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  
 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BS N 홍보팀 pr@kbsn.co.kr

## N special

# 1등이 뭣이 중헌디?

누구나 1등을 원한다. 하지만 모두가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오를 수는 없다.  
 우리는 승부를 즐기되 순위에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함부로' 빠져든 팬심으로  
 시작해 끝까지 '애틋한' 팬심으로 간다. 좋아하는 야구팀을 응원할 때도 그렇고,  
 아이돌 스타를 응원할 때도 그렇다. '1'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속 빼앗겨버린 지극히 주관적인 내 마음속 순위에 주목한다.  
 이름 하여 '함부로 뽑은 나만의 랭킹'이다.



# 티격태격 주간 1위 쟁탈전

갑론을박 야구 버라이어티 <불야성>

행복은 성적순이다! 주간 야구 성적에 따라 '급'이 나뉜다. 1등의 갑질은 기본, 5등 밑으로는 출연 기회도 박탈된다. <불야성>에선 이게 상식이다.



행복은 성적순이다!  
야구의 성지

## 주간 야구 생활, 야덕들의 팬심 배틀

자칭 타칭 야덕임을 자부하는 연예인들의 면면을 보자. 이병진은 경력 38년차 야구팬으로 '두산 베이스 승리의 요정'으로 통한다. 말을 댄 1년에 60번 이상 직관을 다니는 제2의 구단주급 열성팬이다. 올봄에는 두산 스프링캠프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작년에 이어 승승장구하는 팀답게 첫 회의 왕좌는 두산이 차지했다.

넥센 서건창 선수의 타격 자세를  
홍내 내어 티격태격하는 중이다.



지상렬이 문자를  
보내자마자 김성근  
감독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희석이 놀라며 마이크를  
댄다.

1년에 60번 이상 직관을  
다닌다는 두산 열성팬  
이병진. 왕좌의 주인공은  
주간 팀 성적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성적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갑론을박 야구 버라이어티!” 오효주 아나운서의 오프닝 멘트가 모든 걸 말해준다. <불야성>이 7월 25일 첫 방송을 탔다. 불야성? 금성무가 주연한 영화도, 탕수육을 주문하던 동네 중화요리점도 아니다. 이름 하여 ‘불평등 야구의 성지’다. <불야성>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10시 KBS N Sports 채널에서 방송된다. 프로야구 경기도, <아이러브 베이스볼>도 잠시 쉬어가는 그날, 10개 구단을 대표하는 연예인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들어 한 주의 야구를 정리하고 ‘썰’을 푼다. 나이와 인기, 연예계의 화려한 경력은 필요 없다. 오로지 자신이 응원하는 구단의 주간 성적에 따라, 유느님 부럽지 않은 대접을 받는, 순위 지상주의를 표방한다. 1등의 갑질은 기본이요, 주간 성적 5등 밑으로는 출연 기회가 박탈된다. 그럴 땐 집에서 <불야성>을 시청하면 된다.

그 옆에 충청도의 아들 남희석이 앉았다. “무슨 광어도 아니고, 허구한 날 바닥에만 있슈. 이젠 좀 올라가서 윗물에서 놀아봤을 좋겠슈.” 남희석은 야구를 보다 득도했다. 하회탈을 벗고 보살의 경지에 이른 한화 이글스 팬이다. SK 와이번스의 열성팬 지상렬도 빠질 수 없다. 그는 삼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회원 출신으로, 인천 야구사의 격변을 몸으로 겪었다. 청보 핀토스,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를 거쳐 SK에 안착했다. 김경기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태평양 유니폼을 들고 와 야덕임을 입증했다.

팀 성적과는 상관없이 ‘밥만 잘 먹더라’는 움프의 이현은 기아 타이거즈 팬으로, 세 살 때 이후로 승리가 없다는 블랙비의 재효는 롯데 자이언츠의 모태 팬으로 나왔다. LG 트윈스는 27년차 골수팬인 개그맨 이광섭이, 신생팀 KT 위즈는 레인보우 지숙이 합류했다. 또 치어리더 여신 김연정(NC 다이노스)은 넥센 히어로즈의 마스코트 턱돌이에 맞서 열띤 응원전을 벌였다.

## 주간 야구 성적, 뭇이 중헌디?

그리고 보니 한 팀이 빠졌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다. 구수한 대구 사투리에서 이승엽이 오버랩되는 박지훈 변호사가 팬으로 나섰다. “2002 월드컵? 난 신경도 안 썼어. 오로지 야구만 봤어. 우승? 그동안 지겹게 했으면 됐지. 라이온즈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통합 4연패했잖아. 올해는 봤어. 좀 쉬었다 가자고” 그러자 남희석이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유니폼처럼 퍼렇게 멍들었다”고 지적한다. 엘롯기(엘지, 롯데, 기아) 팬들도 힘을 합쳐 발끈한다. 허세와 갑질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지상렬은 이광섭을 두고 “급이 안 되는 애가 나왔다”며 놀리고, 이광섭은 “진짜 LG 팬은 나처럼 숨어 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를 만날 기회가 많았지만 일부러 피했다”며 맞선다. 티격태격하는 신경전이야말로 <불야성>의 묘미다.

올해 야구도 흥미진진하다. 상위 몇 팀을 빼고는 승차가 적어 가고 일어나면 순위가 엇치락뒤치락한다. 엘롯기의 중위권 다름은 점입가경이요, 삼성의 가세(?)로 하위권 탈출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그나저나 <불야성>은 끝까지 팬심으로 간다. ‘야구 성적, 뭇이 중헌디?’란 코너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5연패를 당하더라도 주눅 들지 않는 팬부심을 담았다. <불야성>은 방송 하루 전인 일요일에 녹화한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린 5경기를 두고 팀의 주간 승패를 예상한다. 그리고 공약도 내건다. 블랙비 재효는 롯데 직관 공약을, 레인보우 지숙은 KT 조범현 감독과의 셀카를 약속했다. 남희석은 “한화의 어떤 투수든 완봉으로 이기면 전체 회식을 쏘겠다”고 나섰다. 야유를 들었다. 주간 야구 성적에 따라 왕좌의 자리는 언제든 바뀐다. <불야성>에서 영원한 건 ‘팬심’뿐이다.

# 아재와 소녀의 아이돌 랭킹10

## 순정 자극 아이돌 랭크쇼 <차트를 달리는 소녀>

아이들이 궁금한 '아재'와 상큼발랄한 아이돌 '소녀'가 만났다. 소녀의 바람은 아재의 배움이 깊어져 아이들처럼 젊게 사는 것. "아재아재 바라 아재, 젊어지길 바라 아재~"

이상민이 드디어 아이돌 전문 방송에 입성했다. 이름 하여 <차트를 달리는 소녀>(이하 '차달소'). <차달소>는 알파고 뺀치는 스마트함과 네티즌을 넘어서는 수사력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돌 랭킹을 선보이는 KBS Joy 채널의 새 예능이다. 열 번이나 오디션에 떨어졌다 소속사에 들어간 K군의 정체는? 팬들을 화들짝 놀라게 할, 아이돌의 인맥은 어디까지? 제2의 유재석을 꿈꾸는, 웃음 주고 사랑받는 예능새별 아이돌은?

아이들이 궁금한 삼촌, 이모 팬들 참 많다. 그런데 나서서 물어볼 곳이 없다. <차달소>는 등급이를 자처한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차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준다. 정보력이 달리는 '아재'를 위해 현역 아이들도 섭외했다. 그 주인공은 그룹 AOA의 리

드보컬 초아. 금발의 커트머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섹시와 애교를 다 갖춘 심쿵 소녀가 아재와 보조를 맞춘다.

### 갱생아재와 상큼발랄 소녀의 만남

"소녀 마음 알아주는 아재와 함께 합니다. 순정 자극 아이돌 랭크쇼! 차트를 달리는 소녀~" <차달소>의 오프닝 멘트와 함께 오늘도 아재는 달린다. 첫 회의 주제는 '아이돌 안 해도 3대가 먹고 살, 배넷 부자들'이다.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가장 부자 집안은 누구? 스노보드 배우러 스위스로 날아간 NCT의 태국인 멤버는? 비행기도 일등석만 고집한다는 LA의 부자 아빠를 둔 갓세븐의 만형마크는 몇 위?

돈 이야기에 아재의 눈이 반짝인다. <차달소>에서 이상민은 '음악의 신'도, <냉장고를 부탁해>의 요도남(요리하는 도시 남자)도 아니다. 그냥 아재다. 열심히 일해서 빚 갚고 있는 '갱생아재'. 그래서인지 숫자에 밝다. 명동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는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비수기인 1월 한 달에만 1억2천만원 넘게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재가 계산에 들어간다. "2014년 10월에 오픈했으면, 올 7월까지 21개월로 쳐서 지금까지 번 돈이 25억을 훌쩍 넘는단 소리네. 성수기 매출이 두세 배라고 보면... 흐흐"

금발의 세련된 외모만 보면 금수저일 것만 같은 AOA 초아도 외모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 용산에서 IPTV를 파는 아르바이트로 판매왕에 오른 적이 있다. 그때 번 돈으로 연습생 시절을 버틴 자수성가형 아이돌이다. 어쨌거나 두 MC의 나이 차는 무려 열일곱! 이날 처음 봤는데도 어색함이 없다. 너무 잘 맞는다. 영화로 치면 레옹과 마틸다 급이다.

### 랭킹으로 풀어보는 아이들에 대한 궁금증

<차달소>는 두 MC의 프리토크로 진행된다. 이상민은 이야기거리가 많은 아재다. 그는 롤라 해체 이후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하던 전성기를 떠올린다. "JYP 사옥이 9억 하던 시절, 통장에 현금

48억원이 들어 있었지. SM 건너편에 내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때 SM 소속 가수들이 견학을 다녀가곤 했어."

당시 무명에 가깝던 리쌍의 길에게 현금 3백만원을 선뜻 건넬 만큼 통 큰 아재였다. 길은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롤라가 9집으로 복귀할 때 <별이 진다네>란 곡을 선물한 바 있다. 이 말을 들은 소녀가 한마디 한다. "아재, 그럼 저한테도 용돈 주세요. 백만원만." 아재는 소녀의 눈을 피해 고개를 돌린다. "소녀, 아재의 한 달 생활비가 백오십만원이란다."

<차달소>는 순위 발표 중간 중간에 재미난 코너를 마련했다. '아재아재 바라 아재'는 아재 탈피를 돕는 소녀의 '뺨질 용어 원 포인트 레슨'이라 할 수 있다. 십대 팬들이 자주 쓰는 '이선좌'는 사람이름이 아니다. 콘서트 티켓팅 상황에서 팝업 창으로 자주 보는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의 줄임말이다. 아재는 또 하나 배워간다. 이 밖에도 '아이돌 춤 배우기', '아재 랭킹' 등 순정 가득한 코너가 가득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재의 순정과 소녀의 순정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친다. 아재가 소녀를 알아가는 만큼, 소녀도 아재를 알아가는 '쌍방향 소통 랭크쇼'다. "소녀, 이쯤 하면 오빠라 불러도 안 되겠니?" 아재의 요청에 소녀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첫 회로는 부족하다. 아재의 얼굴은 계속되어야 한다.



KBS Joy 수요일 오후 4시 50분 방송

갱생아재 이상민  
"요 정도 달려주면 오빠  
해도 되지 않겠니?"

소녀 초아  
"아재아재 바라 아재~ 더  
열심히 달려주세요!"

아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달소>에서는  
친절한 3D 차트를 제공합니다.



## KBS Kids 출발 키즈 드림팀 지구 한 바퀴 체험전 랭킹10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8월 31일까지

아이가 흔들다리를 건너는 동안, 아빠는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부산 벡스코를 찾자 '지구 한 바퀴 체험전'의 열기를 확인했다. 참여도, 호응도가 높은 체험 10개를 '합부로' 선정했다.

아이들에게 리우올림픽보다 <출발 키즈 드림팀-지구 한 바퀴 체험전>이 더 흥미롭다. 아시아 선수촌에서 올림픽 스포츠를 즐기고, 보트에 올라 태평양을 횡단하고, Y보드를 몰고 미 대륙을 달린다. 말 그대로 '지구 한 바퀴' 체험이다. 5대륙 5대양으로 구분된 20개 체험 존을 돌며 어린이 성장에 꼭 필요한 신체놀이, 두뇌개발, 감성교육을 즐길 수 있다. 경남 양산에서 부모, 동생과 함께 체험전을 찾은 이재빈 군(6세)에게 "뭐가 가장 좋았어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재빈 군이 망설임 없이 입을 연다. "다 좋았어요." 아이들은 순위 신경 쓰지 않는다. 내키는 대로 뛰고 논다. 그 마음으로 골랐다. 다시 말하지만, 랭킹은 중요치 않다.



태평양 보트 횡단

한여름이라 시원한 물놀이가 당긴다. 6600㎡(2000평)의 널찍한 공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구명조끼를 입고 보트에 올라 운동장 트랙을 돌 듯, 물길을 한 바퀴를 돌아오면 성공. 발로 페달을 밟는 오리배와는 다르다. 두 손으로 물레의 손잡이를 돌려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낸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보트에 올라 카약을 즐길 수 있다.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아빠들의 참여도가 특히 높다.



출발! 키즈 드림팀

<출발 드림팀>의 어린이 체험전 버전이 가장 가깝다. 용기를 내어 세 가지 장애물을 통과해 결승선에 도착하면 성공이다. 흔들다리를 지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물을 넘어, 빙빙 돌아가는 원통 기둥을 건넌다. 떨어져도 다칠 일 없다. 호기심 많은 4~6세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



카리브해 보물찾기

멀리서 보면 커다란 '인형 뽑기 기계'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집게손 대신 사람이 직접 매달려 뭔가를 집어 온다는 점이다. 줄을 서서 이용하는 인기 만점 체험으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가 된 기분이다. 기념품 숍에서 티켓(5000원 유료)을 사서 도전할 수 있다. 곰인형, 물총, 구명조끼 등 보물의 가성비가 높다. 단, 아무리 욕심나도 보물은 꼭 하나만 뽑자.



1988 후들이 올림픽

에어바운스가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야? 딱 봐도 헬로키티 취향이다. 5, 6세 여자아이들이 꼬르르 달려가 방방 뛰고 본다. 암벽 등반, 계단 오르기, 미끄럼틀 등을 접목한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라!'와는 또 다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는 뭘까요? 이 문제에 답하는 것도 월드 미션에 든다.





5

쌍쌍 Y보드 미국 횡단

기존 킥보드와는 다르다. 두 개의 뒷바퀴를 좌우로 움직여, 손잡이가 아닌 몸과 다리로 방향을 잡는다. 초등학교생들은 Y보드에 금방 적응한다. 속도감도 좋다. 이번 체험전에는 '오 마이 포니', '사하라 사막 횡단 레이싱' 같은 탈거리가 많다. 그중에서 '쌍쌍 Y보드'를 고른 건 부모와 함께하며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편지 쓰기 체험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다. 기념품 속에서 편지봉투와 편지, 우표를 300원에 사서 편지 쓰기에 도전해보자. 겹봉에 집 주소를 적어 바로 옆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며칠 후 집에 도착한 편지를 보며 이날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 색연필로 색칠 놀이를 할 수 있어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도 인기가 좋다.



8

부산 기장 꿈장어를 잡아라

대형 수조 앞에서 벌이는 낚시 체험이다. 낚시 좋아하는 미래의 강태공들이 의외로 많다. 부산에 왔으니 꿈장어 정도는 잡아보자. 꿈장어(떡장어), 뱀장어, 붕장어, 갯장어의 차이는 뭐가? 그림판을 보여 알쏭달쏭한 궁금중도 해소할 수 있다.

9

로보텍스 팽이대전

변신 팽이로봇의 활약을 다룬 KBS Kids의 인기 애니메이션 <로보텍스>를 본 친구들이라면 꼭 찾는 곳이다. 로보텍스 완구로 팽이 배틀에 도전해보자. '아미고', '스피닝 코어'가 뭔지 모르는 어른들도 팽이 돌리기는 문재없다. 런처에 팽이를 꽂아 두세 번 감은 후 발사 버튼을 꼭 누르기만 하면 된다.



7

매직 버블쇼

참여도와 호응도만 놓고 보면 첫 순위에 올려도 무방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한다. 공연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잔뜩 몰려 다른 체험장이 텅 빌 정도. 아시아 대륙의 신기방기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매직 버블쇼'는 평일 1회(오전 11시 30분), 주말 2회(오후 1시, 4시)가 잡혀 있다. 30분가량 진행되는 이벤트성 공연이라 집중도가 높다.

원광식 미술사의 공연이 시작된다. 우유를 따른 종이 불길을 머금고 하늘로 사라진다. 풍선을 터뜨리자 흰 비둘기가 뿜 하고 나타난다.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긴 막대풍선으로 강아지, 꽃, 모자를 만들기 시작한다. 서로 달려들 소리치는 아이들의 환호성으로 장내가 떠나간다. 다음은 버블쇼. 비눗방울을 터뜨리려고 몰려든 아이들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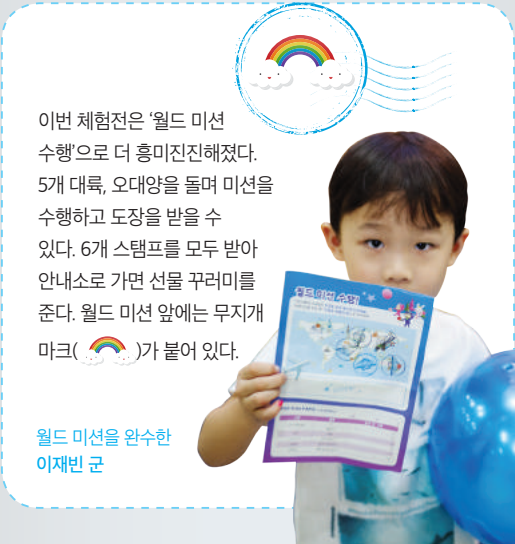


아마존 정글 소리체험

신체, 두뇌 활동이 다가 아니다. 감성 체험도 중요하다. 나무로 된 악기들을 막대로 두드리고 손으로 문지르며 소리를 들어보자. 여러 도구들 중에서 자연의 소리를 세 가지 이상 맞추면 월드 미션 도장을 받을 수 있다.

10

출발 키즈 드림팀



이번 체험전은 '월드 미션 수행'으로 더 흥미진진해졌다. 5개 대륙, 오대양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고 도장을 받을 수 있다. 6개 스탬프를 모두 받아 안내소로 가면 선물 꾸러미를 준다. 월드 미션 앞에는 무지개 마크(🌈)가 붙어 있다.

월드 미션을 완수한 이재빈 군

KBS Kids <출발 키즈 드림팀-지구 한 바퀴 체험전>은 8월 31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장 마감은 오후 5시). 입장료는 어린이 18,000원, 성인 12,000원(24개월 미만 무료)이다. 1인용 빈백 소파가 놓인 아빠 쉼터, 뉴욕 카페테리아, 돛자리 존 같은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돛자리 존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아이들 낮잠을 재울 수 있다.

# 4인 4색 아이들 매력에 풍당

속터지는 육아일기 <엄마는 고슴도치> 시즌2

<엄마는 고슴도치>가 시즌2로 돌아왔다. 고슴도치 가족의 일상엔 더 흥미진진해졌고, 공동관찰 카메라의 실험은 더 강력해졌다. 눈을 떼려야 땔 수 없는 아이들의 무한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KBS Drama 채널의 인기 예능 <엄마는 고슴도치>가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7월 21일 목요일, 시즌2를 새롭게 선보이며 시청률 군히기에 들어갔다. MC 이영자와 고슴도치 멘토 양재진 원장의 찰떡 호흡은 여전하다. 시즌1에서 활약한 현영, 변기수, 최철호에 이어 새 식구도 들었다. 안방 드라마의 단골 배우인 이현경이 그 주인공. 뮤지컬 배우인 민영기와와의 사이에 아들 하람 군을 두고 있다.

민하람은 어른스러운 언어 구사력, 요리와 청소까지 도맡아하는 책임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빠를 닮아 노래를 잘하고, 엄마를 닮아 표현력도 좋다. 애교 많은 딸과 상남자 아들을 합쳐놓은 흔치 않은 매력으로 현영과 최철호가 사위 쟁탈전을 치르게 한다. 이에 질세라, 변기수의 아들 은재도 통통 튀는 말과 행동으로 럭비공 같은 매력을 선보인다. 오죽 좋았으면 이영자가 “내 딸은 은재한테 시집 보낸다”고 했을까.

‘일상 카메라’와 ‘4인 4색 공동관찰 카메라’는 아이들의 개성과 돌발 행동, 천진함을 잘 잡아낸다. 아동심리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더해 육아 정보도 강화했다. 부모도 부모지만, 육아 예능의 인기 비결은 역시나 아이들에 있다. ‘똥 부러지는 엄마’ 현영의 딸 다은이부터 ‘목소리 큰 아빠’ 최철호의 딸 예진이까지, 그 매력을 속속들이 알아봤다.



속터지는 육아일기 시즌 2  
엄마는 고슴도치

## 4인 4색 공동관찰 카메라

돌발 상황에서 아이들의 대처 능력을 알아보는 ‘공동관찰 실험 카메라’가 시즌2에서는 확실히 세졌다. 한 가지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언어가 발생하는 난처한 일들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대박에서 쪽박! 우리 집이 망해 거리로 내몰린다면?” “부모가 집은 비운 동안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겼을 때, 아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말할까?” 실제로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아이들 심리가 돌발 상황에 그대로 담긴다. 그리고 의외의 당찬 모습과 순수함에 깜짝깜짝 놀란다. 때로는 어른들도 쉽게 내리기 힘든 판단을 행동으로 스스럼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재미’와 ‘공감’에 더해 ‘육아 정보’도 놓치지 않는 점이 실험 카메라만의 매력이다.



## 다은 캔 두잇!

눈웃음 뺨뺨 날리며 폭주하는 애교 덕에 광대를 승천하게 한다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애교쟁이 딸이다. 엄마를 위해 서라면 소중히 모은 저금통도 기꺼이 내놓는 통 큰 효녀. 할머니와 엄마를 사이에 두고 누구를 편들까 고민하다가도, 낯설게 엄마를 챙기는 속 깊은 딸이다. 엄마를 닮아 똥 부러지는 현명함을 겸비한, 믿고 키우는 든든한 ‘민키딸’로 통한다.

현영 딸 다은(5세)



## 변기수~ 착한 아들 은재 나오슈~

툭툭대도 정이 넘치는 다섯 살 아이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심성을 지녔다. 아빠를 무시하면서도 은근히 챙기는 귀여운 촌데레이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말과 행동으로 어른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 재간둥이다. 아끼는 장난감도 여동생이라면 무조건 퍼주는 듣직한 오빠. 낯을 가리지만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가는, 김보성 부럽지 않은 의리남이다.

변기수 아들 변은재(5세)



## 하람 하람 나와람~

나이가 믿기지 않는 어른스러운 언어 구사력을 선보인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엄마의 든든한 슈퍼맨. 스크르 녹는 애교와 개구쟁이 남자아이가 공존하는 딸 같은 아들이다. 아빠의 재능을 이어받아 3분짜리 뮤지컬 노래를 외워서 부르는가 하면 남다른 상상력으로 엄마와 상황극을 연출하기도 한다. 달걀 깨기, 장난감 정리, 청소기 돌리기에 소질이 있다. 제철 과일을 유난히 좋아하고, 유명을 믿는 순수한 동심을 지녔다.

이현경 아들 민하람(5세)



## 꽃보다 예진이 나와라~

잘생긴 배우 아빠를 쏙 빼닮았다. 남심저격한 예쁜 얼굴만큼 마음씨도 착하다. 노상방뇨(?)한 아빠의 뒤통사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효녀 예진 이. 아빠의, 아빠에 의한, 아빠를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서는 아빠만의 수호천사. 하지만 서인영 못지않은 구두 마니아이기도 하다. 구두 앞에선 아빠도 2인자일 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일곱 살 예진이의 매력은 풍부한 상상력에서 나온다.

최철호 딸 최예진(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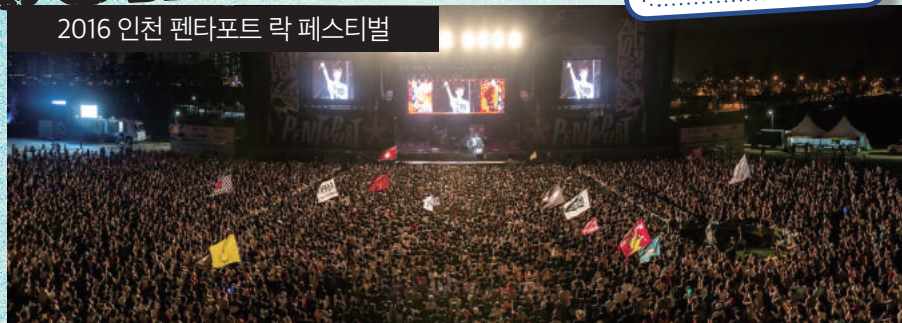




# 3DAYS ROCK SPIRIT



201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젠 '역사'라 불려도 무방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 송도에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3일간의 자유와 낭만을 누려보자.

KBS N이 공동제작으로 참여하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올해로 11회를 맞는다. '펜타포트'는 대한민국 락 페스티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올해는 1990년대 모던락에 대표하는 스웨이드와 위저가 쌍두마차로 페스티벌을 이끈다. 그 외에도 패닉 앳 더 디스코, 투 도어 시네마 클럽, 나씽 벳 락스, 백신스, 넬, 데이브레이크, 자이언티, 십센치 등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펜타포트는 8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 공원에서 열리며, 8월 말 KBS Joy, KBS W 채널을 통해 방송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 8. 12 FRI

**HEADLINER** 90년대 브릿팝의 전성기를 열었던 스웨이드(Suede)가 첫날의 대미를 장식한다. 2013년 펜타포트의 헤드라이너로 출연했던 스웨이드는 최근 7집 앨범 <Nothing Thoughts>를 발표하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밴드로는 넬이 무대에 오른다.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찾은 펜타포트 무대라 더 반갑다.

**RECOMMEND** 드림 스테이지에 마련된 스페셜 무대는 펜타포트만의 특색을 잘 보여준다. 김창기·이윤정·피터팬컴플렉스·위아더나잇이 함께하는 '김광석 20주기 기념 공연', 국내 최고 기타리스트인 김도균·토미키타·김태진이 뭉친 '펜타포트 슈퍼 밴드'의 무대가 기대된다.

## 8. 13 SAT

**HEADLINER** 경쾌한 사운드로 귀를 즐겁게 하는 LA 출신 팝 펑크밴드 위저(Weezer)가 마지막 무대에 오른다. 또 2014년 펜타포트로 첫 내한공연을 가졌던 크로스페이스(Crossfaith)가 관객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힘입어 다시 한번 펜타포트를 찾는다. 애플의 아이팟 광고에 쓰인 'Tongue Tied'가 히트하며 세계적인 밴드로 성장한 그룹러브(Grouplove)도 처음으로 내한한다.

**RECOMMEND** 올해 펜타포트에서 놓치면 안 될, 강력 추천하는 밴드가 있다. 파괴 속의 고요함을 연주하는 영국의 초대형 신인밴드 나씽 벳 락스(Nothing But Thieves)다. 일찍이 뮤즈에게 발탁되어 월드투어 오프닝 게스트로 활약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과거 라디오헤드를 떠올리게 하는 코너 메이슨의 보컬에 강렬한 밴드 사운드로 관객의 마음을 훔친다.

## 8. 14 SUN

**HEADLINER** 마지막 날에는 패닉 앳 더 디스코(Panic! At The Disco)와 투 도어 시네마 클럽(Two Door Cinema Club)이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 2008년 내한공연이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남긴 패닉 앳 더 디스코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잦은 멤버 변동으로 보컬인 브랜든 유리의 원맨밴드 형태가 되었지만, 당당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정규 앨범 <Death Of A Bachelor>는 아델의 독주 속에서 빌보드차트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RECOMMEND** 화제의 락밴드 스파이어(Spyair)도 주목하자.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를 마치고 슈퍼 밴드로 도약했다. 지난해 4월과 12월에 진행된 단독 내한공연은 15초 만에 매진을 기록할 만큼 국내에도 확실한 마니아층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영국 인디의 희망 백신스(The Vaccines), 폭발하는 댄스 유태자 카스, 발라드뿐 아니라 록과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정준일의 무대도 기대가 된다.



ROCK ~ ROLL

# 스카이라이프와 함께한 KBS N 사회공헌활동

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간 후토스 친구들

KT스카이라이프는 '봉사활동'을, KBS N은 '행복공연'을 맡았다. 함께라서 더 좋았다. 두 미디어그룹이 손잡고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7월 15일, 마포구 상암동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재활병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어린이 행복공연' 현장. KBS Kids의 후토스 친구들이 등장하자 아이들의 환호가 터져 나온다. 장소는 병원 5층에 마련된 부모 쉼터. 후토스 친구들이 노래에 맞춰 율동을 시작하자 점심을 먹던 아이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선다. 재활치료를 받는 발달장애아들을 생각해 손쉬운 동작으로 율동을 짰다. 신이 난 남자아이가 무대로 나와 모야를 답사 안는다. 모야가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 기적의 어린이재활병원에서 다 함께 즐기는 행복공연

그동안 사회 공헌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KBS N은 오랜 인연을 맺어온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이번 활동을 기획했다. 두 회사는 같은 지역구에 위치한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봉사 및 행복공연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기적의 병원'으로 불린

다. 푸르메재단이 주도해 1만명의 개인 기부자, 500개 기업·단체의 후원으로 지난 4월에 개원했다. 장애어린이들이 초기 진료부터 재활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으로, 사회재활과 직업재활을 연계한 전인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 쪽은 의료수가가 워낙 낮아 기부나 후원이 절실하다.

KBS N은 이날 치료에 지친 아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고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준비했다. 후토스의 댄스공연에 이어 마술공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했다. 장미여관의 육종완을 쏙 빼닮은 마술사의 활약은 대단했다. 심지어 부모들이 더 좋아했다. 바람을 넣은 커다란 고무공을 머리에 쓰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춤을 출 땀 박장대소가 터졌다. KBS N은 행복공연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나눠줄 장난감 선물을 준비했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후토스 친구들이 나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위 스카이라이프 이남기 대표(가운데 오른쪽)가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임윤명 원장(가운데 왼쪽)에게 시계를 기증하고 있다.

아래 KBS N 이준용 대표가 스카이라이프 이남기 대표(왼쪽)와 함께 재활센터 봉사활동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상처 입은 두 남녀의 계절 같은 멜로 *함부로 애뜻하게*

### <함부로 애뜻하게>

글 김선영 TV평론가

이경희표 '치명 멜로'가 돌아왔다. 잔혹한 운명과 그마저 뛰어넘는 더 지독한 사랑 이야기. 이번엔 시한부 삶을 사는 남자와 벼랑 끝 삶을 사는 여자의 이야기다.

신준영(김우빈)은 초특급 한류스타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상처로 가득하다. 생부는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엄마는 친부와 연을 끊었다. 설상가상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 남은 삶은 고작 3개월. 더는 바닷을 드러낼 절망도 없다고 느낄 때, 오랫동안 찾고 있던 그녀를 만난다. 그의 실수로 삶이 망가진 여자 노을(수지). 해맑던 모습은 간데없이 닳고 닳은 속물이 됐지만 여전히 눈부시고 아름답다. 준영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함부로 애뜻하게>는 설정부터 이경희 작가의 인장이 진하게 찍힌 드라마다. 그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내면에 어두운 상처를 지녔고, 그것은 치유하기도 힘든 극한의 비극이다. 이경희 멜로에 자주 등장하는 불치병은 통속적 장치라기보다 그 마음의 고통이 몸의 증상으로 발현된 것에 가깝다. <함부로 애뜻하게>에서는 이 증상이 남녀 주인공 모두에게 드러난다. 시한부 환자인 준영은 물론이고, 노을 역시 과거의 사고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 자주 쓰러진다.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상처의 이야기이자 애절한 사랑임을 예고한다.

### 두 번의 이별 단 한 번의 운명적 사랑

<함부로 애뜻하게>는 '사계(四季)'의 멜로다. 평소 "사랑이란 감정에 사계를 담고 싶다"고 말해 왔던 이경희 작가는 준영과 노을의 이야기에 '봄의 설렘, 여름의 열정, 가을의 결실, 겨울의 상실'을 모두 담아내고자 했다. 상실의 겨울을 먼저 그려낸 것은 두 주인공의 상처가 그 계절만큼 혹독해서다. 두 사람은 깊은 상처 때문에 사랑을

꽃피우기도 전에 두 차례나 이별을 겪어야 했다. 고등학생 때는 생부의 비밀을 알게 된 준영의 방황과 노을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다. 대학생이 되어 다시 만나지만, 노을과 생부의 악연을 알게 된 준영의 과로로 노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비극적인 결별을 맞았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마침내 재회한 둘은 한겨울의 도로에서 서로 마주한다. 준영은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채 빚에 시달리는 노을은 직장에서도 쫓겨난 상태였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처럼 남은 둘의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 명장면으로 호평 받은 첫 회 엔딩 신에서 "너 나 몰라?"라고 처절하게 묻는 준영과 "알아, 이 개자식이야"라고 답하는 노을의 모습은 오랜 결별의 시간을 두고 얼어붙었던 둘의 감정을 순식간에 현재진행형으로 되돌리고, 시청자들의 눈길까지 붙잡았다. 앞으로 둘의 사랑이 보여줄 남은 계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애뜻해진다.



## 올여름은 아이들과 함께 부산 벡스코에서

### KBS Kids <출발 키즈 드림팀> 개막식

KBS Kids의 <출발 키즈 드림팀-지구 한 바퀴 체험전> 개막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KBS 지역뉴스에도 실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 4일 오후 2시 30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KBS Kids에서 주관하는 <출발 키즈 드림팀-지구 한 바퀴 체험전> 개막식이 열렸다. KBS N 이준용 대표를 비롯하여 벡스코 함정오 대표, KBS 부산방송 총국 이준안 총국장,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곽문혁 회장, 4개 협찬사 (동아오츠카, 동아제약, 옥스퍼드, 파파야나인) 관계자 등 총 10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다. 이준용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부산·경남 지역 어린이들의 체력과 감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체험전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후 개막식을 기념하기 위해 KBS Kids의 대표 캐릭터 후토스의 공연이 이어졌고, 아이들과 부모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는 부산과 창원에서 KBS 지역뉴스로 방송되어 지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KBS Kids <출발 키즈 드림팀>은 오는 8월 31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에서 열린다.



##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를 KBS N Sports와 함께

### KBS N Sports 2016 리우 올림픽 중계

지구촌 최대 축제,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8월 6일 개막한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2016 리우 올림픽>에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채널 KBS N Sports가 함께한다. KBS N Sports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주요 경기는 물론 다양한 종목의 중계를 통해 올림픽의 진한 감동과 열기를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KBS N Sports는 올림픽 대표 방송사 KBS와 함께 최고 수준의 중계를 선보인다는 각오로 자체 중계인력을 브라질 현지에 파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IOC 출범 122년 만에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리우 올림픽은 8월 6일(한국 시간)에 개막하여 22일 폐막한다. 역대 최대 206개 참가국, 1만여 명의 선수들이 28종목에서 306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쟁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라

### KBS N, <도전 골든벨> '지식실�크로드 대장정 2기' 인솔

<도전 골든벨>의 최후 2인자 학생 17명과 함께 유럽 3개국을 돌았다.

지난 7월 말 KBS N은 KBS <도전 골든벨> '지식실�크로드 대장정 2기'를 인솔, 유럽에서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했다. '지식실�크로드 대장정'은 KBS 1TV <도전 골든벨> 최후 2인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인재들의 견문을 넓히고 학생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난 7월 22일(금) 발대식과 워크숍을 마친 17명의 학생들은 인솔자들과 함께 유럽으로 떠났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3개국을 방문한 학생들은 유럽의 역사와 문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지 유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다. '지식실�크로드 대장정 2기'를 인솔한 브랜드사팀 임창민 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세계를 보는 눈을 넓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Notice

KBSN SPORTS EVENT

I ♥ 베이스볼

응원 인증샷 EVENT!

I ♥ 베이스볼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기념하세요

열정적인 응원 현장의 모습을 찍어 #9080(유료 100원)으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매주 토요일 I ♥ 베이스볼 "hite time 이 맛이다" 코너를 통해 사진과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TIP 사진 속에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있으면 당첨 확률 Up! Up!



N pick

불평등 야구의 성지 불야성~

남희석은 야구를 보다 득도했다. '하회탈' 얼굴에서 '보살'의 자비가 엿보인다. 한화 이글스 팬이라면 그 마음 이해한다. '일주천하라도 좋다. 한화가 주간 1위에 오르면 왕좌에 앉을 수 있다. <불야성>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위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불야성"을 외치는 중이다



속터지는 육아일기 시즌 2

엄마는 고슴도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KBS drama 방송